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 체 사 상 으 로
튼 튼 히 무 장 하 자 !

로동신문

조 선 로 동 당 중 앙 위 원 회 기 관 지

제356호 【루계 제23308호】 주체99 (2010) 년 12월 22일 (수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

최첨단돌파전에서 이룩한 대승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표본공장으로 전변된 희천련하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21세기 표본공장으로 전변된 희천련하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박도춘동지, 최룡해동지, 태종수동지, 김평해동지, 국방위원회 국장들인 현철해동지, 리명수동지가 동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로동당 자강도위원회 책임비서 주영식동지, 련하기계관리국장 리용동지를 비롯한 중앙과 도, 공장의 책임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오면서 바라고바라던 념원이 눈앞에 펼쳐지는 강성대국건설시대에 희천땅에는 세인을 경탄시키는 위대한 창조물이 솟아올랐다.

최첨단돌파전의 선봉에서 기운차게 내달리고있는 희천련하기계종합공장의 영웅적로동계급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최후돌격전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날에날마다 눈부신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련하기계관리국과 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기계공업의 어머니공장인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을 정보산업시대의 표본공장으로 꾸릴데 대한 어버이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내밀으로써 짧은 기간에 공장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시켰다.

공장의 로동계급은 종전건물의 12개 면을 가진 천정을 들어내고 두면으로 된 단열지붕으로 교체하였으며 지하수를 리용한 공조체계를 완성하여 4만여㎡에 달하는 공장을 에네르기절약형건축물로 전환하였을뿐아니라 모든 생산공정의 기술개건을 힘있게 다그쳐 최신식CNC 공작기계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였다.

공장의 CNC화가 전면적으로 실현되고 에네르기절약형건물로 전환된 결과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였으며 막대한 원료자재와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급격히 늘이고 제품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 꾸려진 CNC조립장, CNC가공장을 비롯한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기술개건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궁전처럼 희한한 공장의 내부와 줄지어 늘어선 새형의 CNC공작기계들을 보시고 불과 몇개월 사이에 공장이 천지개벽되였다고 하시면서 기술개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련하기계관리국과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체의 힘과 기술로 세계적인 공작기계공장, 21세기의 표본공장을 일떠세움으로써 최첨단돌파전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자랑찬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애국에 불타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완강한 의지력으로 기계제작공업을 단연 세계적수준에 끌어올렸다고 하시면서 CNC기술의 패권을 확고히 틀어쥔데 이어 최첨단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선것은 선군시대에 이룩된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중공업의 핵심인 기계제작공업이 최첨단수준에 올라선것은 오늘 우리 경제가 어떤 높이에 이르렀는가를 그대로 실증해주고있다고 하시면서 이 눈부신 발전은 진보와 혁신으로 언제나 승리만을 떨쳐온 우리 인민의 위대한 정신력의 빛나는 결실이며 우리 당 인재중시정치의 정당성에 대한 일대 과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련하기계관리국과 희천련하기계종합공장에서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과학기술발전에 총력량을 집중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새 세기의 표본공장으로 전변시킬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끊임없이 비약하고 전진하는 이들의 진취적인 사업태도와 투쟁기풍을 거듭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높은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생산을 부단히 늘이고있는 이 공장의 경험은 첨단과학기술이 생산과 밀접히 결합되여야 강성대국건설에서 은을 낼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련하기계관리국과 희천련하기계종합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백번 실패하면 백번 다시 일떠서 어려운 과학기술적문제들을 기어이 해결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혁명실천은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만이 시대를 격동시키는 최첨단기술의 개척자, 정복자로 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며 이런 사람들이 주체사상을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빛내여나가는 참된 애국자, 불굴의 투사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최첨단돌파전에서 이룩한 대승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표본공장으로 전변된 희천련하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이 제시한 《최첨단을 돌파하라!》는 구호는 우리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추동하는 전투적기치로 된다고 하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화를 강력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금속공업, 기계공업을 비롯한 중요부문에서 첨단기술에 기초한 자립성이 강화됨으로써 우리는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자기 자원, 자기 기술로 자립경제를 힘있게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희천련하기계종합공장은 나라의 기계제작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에서는 CNC화를 실현한 성과에 기초하여 보다 높은 과학기술고지를 향해 계속 줄기차게 돌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가까운 기간에 점령해야 할 목표를 정해주시고 그를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술혁명은 곧 기계혁명이며 기계혁명에서도 기본은 공작기계혁명을 일으키는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는 CNC기술을 대담하게 개발하고 고속화, 정밀화, 지능화된 고성능CNC설비들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내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공작기계공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는데 계속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희천련하기계종합공장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각이한 크기를 가진 고급한 CNC공작기계생산을 급격히 늘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미는것과 함께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한 투쟁을 근기있게 벌리는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CNC공작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공구와 강재를 비롯한 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최첨단돌파전은 곧 기술혁명이라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광범히 벌려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는 동시에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하여 공작기계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지난날 1만대 공작기계를 생산하던 자랑스러운 투쟁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희천련하기계종합공장에 대한 당의 기대는 매우 크다고 하시면서 성능이 좋은 CNC공작기계들을 더 많이 창안제작하여 나라의 공업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데 적극 기여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강성대국의 대문을 선참으로 열어제낄 비상한 열의를 안고 용감하게 돌진하는 우리 로동계급의 투쟁기세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고 하시면서 이런 충성의 전위부대가 앞장에서 기운차게 내달리고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의 뒤받침이 있기에 최후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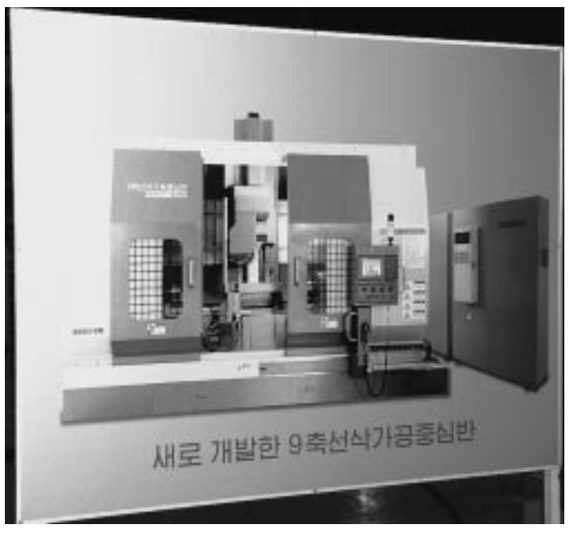
련하기계판리국과 희천련하기계종합공장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들을 경제강국건설의 핵심력량으로 내세워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이 땅에 기어이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고야말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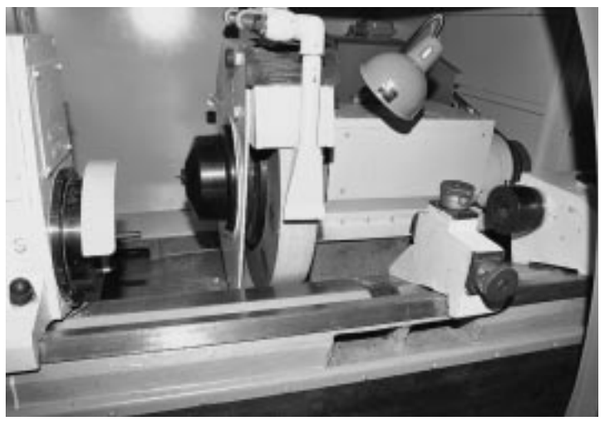
본사정치보도반

최첨단돌파전에서 이룩한 대승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표본공장으로 전변된 희천련하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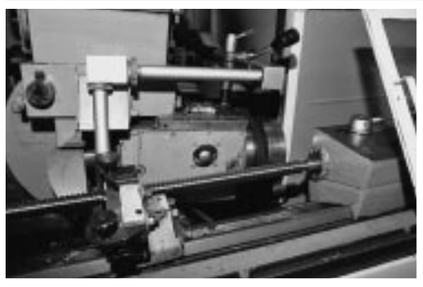




최첨단돌파전에서 이룩한 대승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표본공장으로 전변된 희천련하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최첨단돌파전에서 이룩한 대승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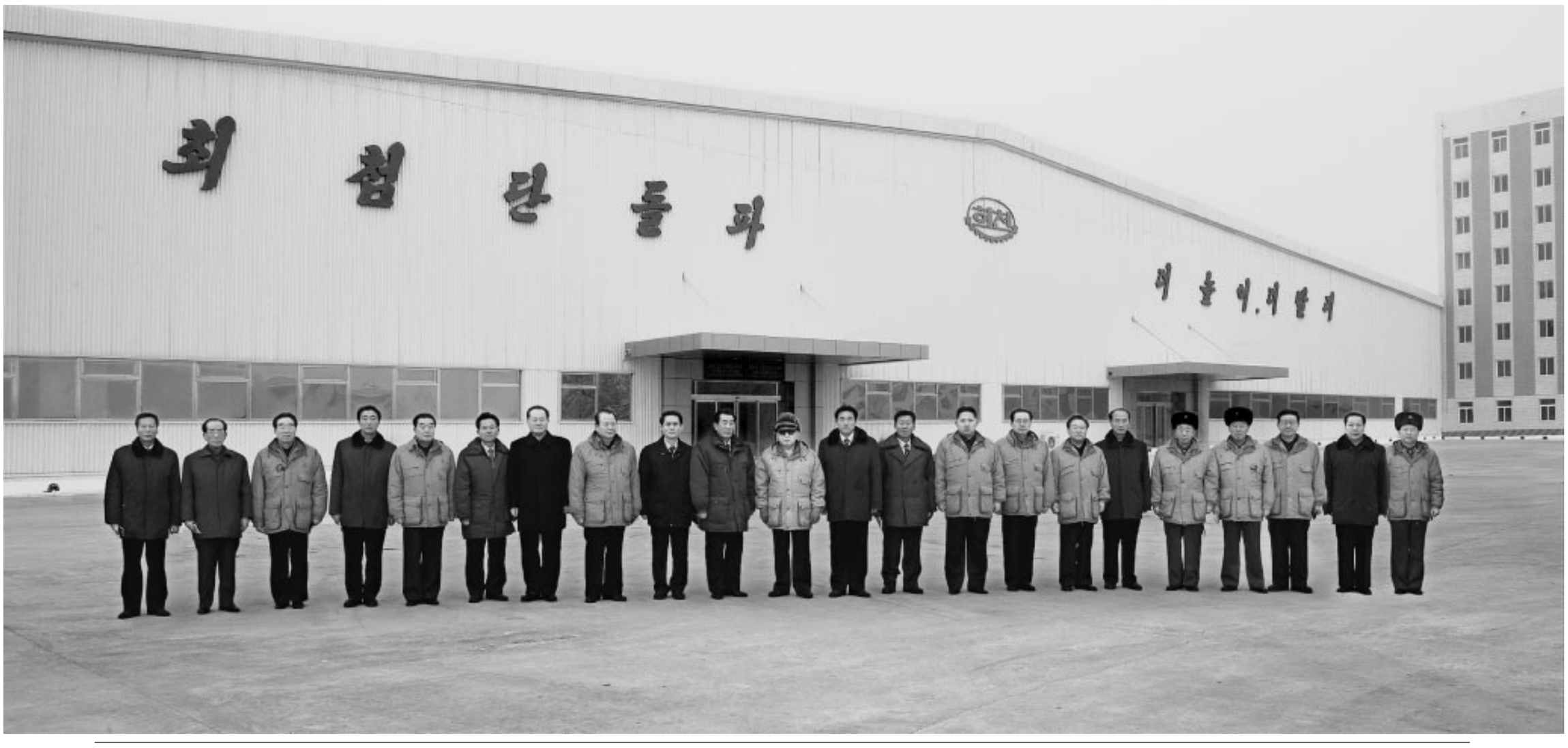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표본공장으로 전변된 희천련하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최첨단돌파전에서 이룩한 대승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표본공장으로 전변된 희천련하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미국 뉴멕시코주 지사가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미국 뉴멕시코주 지사가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을 빌 리챠드슨지사가 20일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선군의 기치높이 전진하는 불패의 강국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9일부터 13일까지의 기간에 기념보도를 하였다.

파키스탄신문 《발루치스탄 타임스》는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김정일령도자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심으로써 조선은 제국주의자들의 집중적인 반사회주의책동속에서도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하는 불패의 강국으로 위용떨칠수 있었다.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선의 군사진지는 철옹성같이 다져지게 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끊임없는 군현지시찰을 통하여 조선인민군을 무적의 강군으로 키우시였으며 국방공업을 부강조국건설의 생명선으로 틀어쥐시고 그 강화발전에 최대의 힘을 기울여오시였다.

신문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의 정치사상진지가 백방으로 강화되였으며 강성대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이 열린데 대해 소개하고 군력을 핵심으로 하는 전반적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이르러 이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있는 조선은 지금 경제강국을 눈앞에 둔 력사적전환기에 있다, 김정일각하의 선군령도따라 조선은 영원히 불패의 강국으로 위용떨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로씨야의 인터네트잡지 《리브쥬르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계정치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고 국방력강화에 선차적힘을 넣으시였으며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보다 공고히 다지신데 대하여 전하는 글을 실었다.

이딸리아의 치따 아베르따방송은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소개하고 조선인민군은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되고 제국주의와의 대결전에서 승리만을 떨치는 강군으로 자라났으며 사회주의조선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강국으로 빛을 뿌리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캄보쟈의 에프엠 90.5방송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시는 특출한 무력관에 대하여 찬양하고 김정일최고사령관을 모신 조선인민군은 필승불패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선배를 존대하는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를

세계적범위에서 널리 연구보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선배를 존대하는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가 발표된 때로부터 15년세월이 흘렀다.

이 기간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가 그대로 명문화된 고전적로작에 대한 연구보급사업이 90여개 나라와 지역에서 활발히 벌어졌다.

중국의 신화통신, 로씨야신문 《쁘라우다》, 꾸바신문 《그란마》, 네팔신문 《라이징 네팔》, 나이제리아신문 《뉴 나이제리언》, 오스트리아의 아파통신, 영국의 BBC방송 등 세계 수많은 통신, 신문, 방송들은 로작을 전문 또는 요지로 전하였으며 로작에 담겨진 숭고한 사상을 깊이있게 해설하는 글들을 편집하였다.

출판보도물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당들과 인민들에게 혁명적도덕건설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밝혀주신데 대하여 널리 소개선전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전적로작에 대하여 로씨야신문 《글라스노스찌》는 김일성주석을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려는 김정일각하의 신념과 의지가 새겨진 선언서라고 하였으며 우간다라지오방송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류에게 다시한번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겨주고 참된 인간들이 지녀야 할 숭고한 도덕의리를 가르쳐준 백과전서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저서를 로씨야 하바롭스크변강출판사, 캄보쟈 언드리 미엑출판사, 베네수엘라 깐따끌라라출판사, 메히꼬로동당출판사, 체스꼬 푸뜨라출판사 등 여러 나라 출판사들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으며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미국선군정치연구소조,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에서는 뷸레쩐으로 발행하거나 인터네트홈페지에 편집하였다.

불후의 고전적로작에 깃들어있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를 깊이 연구하고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이 로씨야, 몽골, 인디아, 방글라데슈, 에짚트, 짐바브웨, 민주꽁고, 가이아나, 벌가리아, 오스트리아, 로므니아를 비롯한 세계 수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벌어졌다.

행사들에서 발언자들은 김정일령도자의 로작은 로동계급의 수령을 어떻게 모셔야 하고 혁명선배들을 어떻게 존대하며 새 세대들에게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고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확히 밝혀준 혁명의 교과서일뿐아니라 혁명의 배신자, 변절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의 범죄행위를 단죄하는 력사의 론고장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네팔로동자농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강연회에서 김정일동지의 로작은 제국주의자들과 기회주의자들, 사회주의배신자들이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공헌한 혁명선배들과 그들의 사상과 업적을 악랄하게 헐뜯고있는 때에 발표된것으로 하여 그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하면서 로작은 세계사회주의운동을 새롭게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매우 커다란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고 말하였다.

중국, 온두라스, 싱가포르선박선원들은 토론회에서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작에서 혁명선배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가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새롭게 천명하시였다고 하면서 로작은 현시대 도덕발전의 진로를 열어놓은것으로 하여 시대의 기념비적문헌으로, 인류공동의 재보로 된다고 격찬하였다.

참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로작 《혁명선배를 존대하는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는 혁명의 전취물을 대를 이어 옹호고수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길을 명시한 불멸의 지침으로 인류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돐에 즈음한

청년학생들과 농업근로자들의 경축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돐에 즈음한 청년학생들과 농업근로자들의 경축모임이 21일 청년중앙회관과 안주시 송학리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 청년학생들, 농업근로자들이 모임들에 참가하였다.

청년학생들의 경축모임에서

청년학생들의 경축모임에서는 리광학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비서의 보고에 이어 평양자동화기구공장 로동자 김충성,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농장원 백영애,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남궁광일, 모란봉구역 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홍길선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희세의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받아안은 더없는 행운이였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군대를 수령결사옹위의 전위대오,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키우시여 주체의 건군위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인민군대가 최정예혁명무력으로 자라나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하고 주체조선이 온 세상에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치고있는것은 백두산천출위인의 불멸의 업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 선군시대의 참된 역군으로 키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는 청년전위들이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무비의 영웅성과 헌신성, 창조적열정을 발휘하게 한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청년동맹일군들과 청년학생들이 당의 령도를 받들고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동맹조직들이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대, 별동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의 경축모임에서

농업근로자들의 경축모임에서는 리명길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안주시 농근맹위원회 위원장 김영권, 송학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박순녀, 운전군 운하협동농장 농장원 최명일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여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결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나라의 군사진지를 철벽으로 다지시고 불패의 군력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농촌건설과 농업생산에서도 획기적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모든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사상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간직하고 애국의 열정을 발휘하여 농업생산에서 비약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농근맹조직들과 일군들은 동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과 대중운동을 실속있게 조직전개함으로써 농업근로자들이 쌀로써 당의 선군혁명위업실현에 이바지하도록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군인들과 근로자들

신파혁명사적지를 련일 참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3돐을 맞으며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이 신파혁명사적지를 끊임없이 찾고있다.

뜻깊은 12월에 들어와 량강도내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겨울철답사행군에 참가한 답사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을 비롯하여 올해초부터 지금까지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수는 연 10만여명에 달한다.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신갈파일대의 혁명조직을 지도하기 위하여 넘나드시던 신갈파나루터와 원호물자보관 및 비밀련락장소들을 찾은 그들은 어머님의 불멸의 혁명사적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조국해방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백두산녀장군의 열렬한 조국애와 투쟁기풍을 가슴뜨겁게 새겨안았다.

그들은 김정숙동지의 정력적인 혁명활동과 업적을 전하는 석전양복점과 광선사진관 등을 돌아보면서 백두산녀장군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결의를 가다듬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돐에 즈음한

청년학생들과 농업근로자들의 경축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돐에 즈음한 청년학생들과 농업근로자들의 경축모임이 21일 청년중앙회관과 안주시 송학리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 청년학생들, 농업근로자들이 모임들에 참가하였다.

청년학생들의 경축모임에서

청년학생들의 경축모임에서는 리광학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비서의 보고에 이어 평양자동화기구공장 로동자 김충성,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농장원 백영애,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남궁광일, 모란봉구역 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홍길선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희세의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받아안은 더없는 행운이였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군대를 수령결사옹위의 전위대오,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키우시여 주체의 건군위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인민군대가 최정예혁명무력으로 자라나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하고 주체조선이 온 세상에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치고있는것은 백두산천출위인의 불멸의 업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 선군시대의 참된 역군으로 키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는 청년전위들이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무비의 영웅성과 헌신성, 창조적열정을 발휘하게 한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청년동맹일군들과 청년학생들이 당의 령도를 받들고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동맹조직들이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대, 별동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의 경축모임에서

농업근로자들의 경축모임에서는 리명길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안주시 농근맹위원회 위원장 김영권, 송학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박순녀, 운전군 운하협동농장 농장원 최명일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여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결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나라의 군사진지를 철벽으로 다지시고 불패의 군력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농촌건설과 농업생산에서도 획기적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모든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사상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간직하고 애국의 열정을 발휘하여 농업생산에서 비약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농근맹조직들과 일군들은 동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과 대중운동을 실속있게 조직전개함으로써 농업근로자들이 쌀로써 당의 선군혁명위업실현에 이바지하도록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로씨야특명전권대사 새해에 즈음하여 친선모임 마련

주체100(2011)년 새해에 즈음하여 왈레리 쑤히닌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가 21일 대사관에서 친선모임을 마련하였다.

모임에는 궁석응부상을 비롯한 외무성일군들이 초대되였다.

로씨야련방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조로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발전시킬데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미국 뉴멕시코주 지사일행 귀국

【평양 12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 빌 리챠드슨 미국 뉴멕시코주 지사와 일행이 21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ㄱ-012330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취급승인 제3호) 전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집위원회